

“사막을 피해 돌아서는 숲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더니 그것이 바로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십년전 EBS를 통해 소개되었던 '나무심는 여자 중국의 인위전' 씨가 한 말입니다.

젊은 시절, 풀한포기 없는 황량한 사막으로 시집을 가게 된 인위전은 좌절하여 일주일 동안 울면서 신세를 한탄하다가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보낼 수 없음을 깨닫고, "여기 꽃을 심으면 안될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무가 살 수 있으면 채소도 살 수 있고, 채소가 살 수 있으면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여 20년간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그루의 숲을 이루어 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다면 할 수 없는 걸림돌만 생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디딤들이 놓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 보다는, 하나의 꽃을 통해 인생을 바꾸어 나가듯이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해결책을 찾아 바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건축학회 제 40대 회장후보로 출마한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훈교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 환경은 토건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의 건축의 위상저하, 오프라인 건축을 위협하는 인터넷 온라인 환경 시대의 도래,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사회의 4기동 중의 하나인 학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축소, 기술과 서비스체계의 변화에 의한 건축설계 및 건설 방식의 개념변화 등등... 사막과 같은 위협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축전공 대학진학률의 저하, 건설인력의 감소, 건축설계비 감축, 건축업역의 축소 등등 건축분야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공간에, 지역간에, 학벌간에, 세대간에 격차가 커짐으로서, 밀려오는 사막의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뜻을 하나로 모을 때에 만어야 기회가 됩니다. 건축인들이 똘똘 뭉치면 세상에 안될 일이 없습니다.

한송이의 꽃을 심을 때 남편이 공감해 주었듯이, 우리가 당면한 건축의 위기속에서 한송이 꽃을 찾아 심는 미래의 디딤들을 놓는데 모두가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학회 회원 여러분!

- 학회가 건축의 사회,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회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지방과 전공을 엮는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 젊은 회원들이 학회를 인정해주고 놀이터처럼 이용하며 학회에 들락거릴 때 건축학회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대한건축학회 제40대 회장 후보 기호 1번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재훈 올림



대한건축학회가
건축의 가치를 높이고
건축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40대 회장 후보자
1 이재훈
기호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